

社說

국민의힘 보는 국민 시선이 처연하다

제1야당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처연하다. 10·15 부동산 대책 후폭풍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등 여권의 잇따른 악재 속에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갤럽의 11~13일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24%로 민주당(42%)에 18%p 차로 밀렸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2%p 올랐지만, 국민의힘은 2%p 떨어졌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뒤 국민의힘은 대어 투쟁에 올인했다. 하지만 이런 국면에서 오히려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벌어졌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27%의 무당층 비율에도 밀리고 있다.

이유는 무엇일까. 부동산, 항소 포기 논란이 잇따라 불거진 '골든타임'에서 지도부가 민심과 괴리된 행보를 보인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항소 포기를 보면서 히틀러의 명령이 어른거린다(13일 장동혁 대표)" 등 강도 높은 발언을 불사했다.

장 대표는 10·15대책 발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 면회를 다녀왔고, 12일 국회에서 열린 규탄 대회에서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긴급 체포를 비판하며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발언했다. 부정선거론 등 당이 거리를 뒀아 할 부정적 이슈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이다.

당 지역 조직을 동원한 규탄 대회나 피켓 시위 등의 투쟁 방식에 대한 자성론도 나온다. 자극적인 발언 대신 국민 눈높이에서 수권 대안 정당임을 부각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해야 하는데 눈을 뜨지 못하는 지도부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당 지도부의 방향성이 민심과 엇박자를 내고 있는 건 아

'부동산·대장동' 여권 악재에도 지지율 저조 윤석열 면회 등 민심과 엇박자 지도부 책임 정치 발전 위해서 '따뜻한 보수' 되살아나야

너지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한다는 위기감이 흐른다.

비록 21대 대선에서 패배해 제1야당이긴 국민의힘의 시대적 사명이 크고 무겁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확립하고, 보수주의 정치철학의 틀을 바르게 세워 나가야 할 시대적 사명이 있다. 특히 "뉴 페이스(새 얼굴)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개탄이 왜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지를 직시해야 할 것이다. 제1야당이 건설해야 집권층의 '독선·독주'를 막고, 국민 신뢰 속에 건전 보수의 정권 창출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국민의힘 중진들은 '청년에게 인기 없는 정당, 특정 지역 정당'이라는 지적과 한계를 극복해야겠다. 이제는 뜬금없고 생뚱맞게 국민적 지탄을 받는 불행 비상상태의 책임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는 정당이 되겠다고 천명해야 한다. '특정 지역 정당' 국민의힘이 여전히 영남권, 특히 대구·경북(TK)을 핵심 기반으로 삼는 현실도 탈피해야 한다.

이는 곧 국민이 염증을 내는 정치권의 구태와 결별하는 일이다. 시대 변화를 제대로 읽고 국민에게 내놓는 답상을 '업그레이트' 하는 일이다. 세상은 제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지만 한국 보수정당의 운용체계는 여전히 20~30년 전에 머물러 있다. 당무 처리와 관련한 시스템보다 리더의 지시와 의중이 우선이고, 차기 지도자를 자체적으로 키우지 못하고 있음을 뼈아프게 느껴야 한다.

한국 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선 '깨끗하고 따뜻한 보수'가 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보수진영은 새로운 인물과 정책으로 국민에게 다가서길 바란다. 합리적 진보, 개혁적 보수는 세상을 보다 건강하게 만드는 양분이다.

국민의힘은 고정불변의 도그마적인 자기 이념에 갇혀 사고하는 건 건전 보수의 자해임을 직시하고 자정(自淨) 개혁을 나서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균형을 다시 세우는 건전한 견제 세력으로,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대중정당으로 환골탈태하길 바란다.

AI제국 황제와 언더독이 된 상속받은 권력자들의 동맹



심규진 칼럼

스페인TE대 교수 정치평론가

젠슨 황은 제국의 균열을 감지하고 국가 단위의 AI 동맹을 설계하고 있다. 이재용과 정의선은 상속된 권력자로서 언더독의 얼굴로 시대의 변화를 배우고 있다.

1984년스티브 잡스는 슈퍼볼 광고 한 편으로 기술사의 방향을 바꿨다. 리틀리 스콧이 연출한 매킨토시 광고 '1984'는 IBM의 제국적 질서에 맞서 인간성과 자유를 되찾겠다는 선언이었다. 그 해머 한 방은 '기계적 권력'에 대한 반란이자 '인간 중심 기술'의 탄생이었다.

그리고 40년 뒤, 또 다른 제국의 중심에 선 인물이 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다. 그는 AI 반도체의 제왕이자 GPU 생태계의 설계자, 인공지능 문명의 구조를 짜는 실질적 설계자다.

최근 그는 서울에서 삼성의 이재용 회장,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을 만났다. 겉으로 치맥 회동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기술 문명의 패권이 이동하는 시점에서 새 질서를 설계하려는 전략적 동맹의 신호였다.



4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엔비디아 CEO 젠슨 황(왼쪽), 도이치텔레콤 CEO 팀 회츠, SAP CEO 크리스티안 클라인이 '산업용 AI 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지금 AI 문명의 제국이다. 그러나 젠슨 황은 IBM의 몰락, 인텔의 정체, 잡스 이후 애플의 혼란을 기억하며 기술 제국이 완벽에 도달한 순간부터 무너진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안다. 그는 이 불안정성을 감지하고 먼저 움직였다. GPU 판매를 넘어 "당신 나라의 AI 공장을 설계하겠다"는 국가 단위 전략으로 방향을 틀고, 지난해 9월 영국 총리 리시 수백과 만나 160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를 약속했다. 데이터센터와 스타트업, 대학, 벤처를 아우르는 국가 단위의 'AI 산업

설계자' 자신을 재정의한 것이다. "영국의 창의성은 AI 혁신의 심장"이라며 상대를 높이고 스스로를 낮춘 그는 곧 서울로 향해 삼성과 현대를 잇는 'AI 동맹 외교'를 펼쳤다.

이제 엔비디아는 단순한 반도체 기업이 아니라, 세계 산업 구조를 설계하는 'AI 문명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의 리더십은 인간 중심이면서도 철저히 시스템적이다. 젠슨 황은 하루 100통의 이메일을 직접 읽으며, 전 직원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다섯 가지"를 행동 중심으로

보고하게 한다. 태그가 달린 이메일을 통해 '현장(edge)'의 생생한 신호를 직접 읽고, 측근의 필터를 거치지 않은 날것의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한다. 그는 워크 라이프 밸런스가 아닌 '워크 라이프 하모니'를 추구하며 일과 삶을 하나의 유니버스로 통합한다. 반면 내부 정치나 부패에는 단호하다. 잘못은 즉시 공개적으로 처벌하고, 성과만이 평가 기준이다. 사람을 지배하지 않지만, 데이터와 원칙으로 제국을 움직이는 리더다.

이재용과 정의선은 이런 젠슨 황의 제국을 분석하며 새로운 생존 방식을 택했다. 상속된 권력자이지만, 시장은 그들에게 '언더독'의 자세를 요구한다.

삼성엔 HBM과 파운드리로 AI의 두뇌를, 현대는 모빌리티와 로보틱스로 AI의 몸을 담당하며 엔비디아 제국에 올라탔다. 단기 종속처럼 보이지만, 이는 기술 학습의 시간 벌기이자 '세컨드 무버 전략'이다. 상속된 권력자가 언더독의 얼굴로 시대를 배워야 하는 역설, 그것이 오늘의 한국형 2세 리더십이다.

AI 제국의 황제와 산업 제국의 후계자들이 만난 서울의 차맥 한잔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다. 그것은 문명의 중심이 다시 인간으로 회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시대적 전환의 신호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관련 보장성 보험 필요한가



바른 보험

김덕웅 카라캐셋 바른 보험 지점 대표

건강하면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다. 나에게 아무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좋은 보험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나이가 그나마 젊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 저하와 함께 신체 노화가 진행되면서 크고 작은 질병이 찾아오면 상황은 달라진다.

그래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지만 대비하기 위해 많은 분이 보험을 가입한다. 그리고 최근 몇 년 새 많은 관심을 받는 보험이 있다. 바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았을 때 각종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장성 보험이다. 아직 나이가 젊은 분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

지만 60세 이상의 연세가 있는 분들은 관심을 많이 보인다. 하지만 현장에서 상담하다 보면 이 상품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보험 가입을 하기보다는 막연한 걱정으로 가입을 서두르는 경향이 너무 두드러지는 것 같아 왜 필요하고 어떠한 보장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지 그 필요성을 정확히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다.

장기요양등급 판정과 관련된 보장성 보험은 과거 1~3등급 판정 시 진단금 형태로 보장을 해주는 상품에서 시작이 되었다. 이후 4등급과 5등급까지 보장을 주는 진단금 형태의 보험이 출시되었고 최근 2~3년 사이 재가 서비스, 요양 시설 이용 등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현금 지급을 해주는 보험까지 선보이고 있다. 지금은 많은 생명보험사들이 앞다퉀 상품을 개발하며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양새다. 그만큼 많은 분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증거다.

그렇다면 이 보험은 언제 가입하는 것이

좋으며 꼭 가입해야 하는 보험일까. 우선 가입 시기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젊으면 젊수록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해질 수 있는 만큼 앞당기면 좋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내가 기존에 가입하고 있는 보험료 지출에 더하여 추가적인 부담을 안겨줄 수 있는 만큼 가입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40~50대 분들에게 조언 드리는 것 중 하나가 지금 당장 가입을 서두르기보다는 향후 10년 내외가 되는 시점에 가입할 수도 있다고 가정하여 현재 가입 중인 보험의 보험료가 언제쯤 납입을 마칠 수 있는지 보험료 갱신이 되지는 않는지 체크부터 하라고 말씀드린다.

더불어 꼭 가입해야 하는 보장성 보험인지 묻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보험은 없으며 가입을 원치 않는다면 만약을 대비하여 어느 정도의 자금은 마련해 놓으면 된다고 현실적으로 말씀드린다. 하지만 노후를 대비하여 충분한 자금이 있는 경우가

드물고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는다고 가정하였을 때 워낙 다양한 사례가 있는 만큼 필요한 자금의 규모가 천차만별이라 이를 현금으로만 준비한다고 했을 때는 그 규모를 가능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모든 보험이 그렇지만 보험은 나를 위해 가입하는 목적이 뚜렷하다고는 하나 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조금이나마 덜 주고 싶어 가입하는 이유도 크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실 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다양한 보장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상품의 경우 필자는 나보다도 내 주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고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가입하는 보험 중 단연 0순위의 보험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꼭 가입해야 한다는 원칙은 없지만 의료 기술의 힘을 빌려 100세 시대를 맞이해야 하는 현실적인 부분을 부정할 수 없다면 진지하게 노인성 질환에 대해 나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고민해 볼 것을 권한다.

Advertisement for '고전을 통해 만나는 현대인의 치인치세 해법' (How to solve dental problems for modern people through ancient wisdom). It features three books: '고전, 당신의 생각을 바꾼다' (334 pages, 15,000 won), '고전, 당신의 행동을 바꾼다' (336 pages, 14,000 won), and '고전, 당신의 미래를 바꾼다' (324 pages, 14,000 won). The books are part of the 'Hwang Jung-taek Kallem Shin-ogochin Series'.